

한살림전북 제 12차 이사회 의사록

1. 소집통지일 : 2017년 12월 13일(수)
2.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 (1) 개회시간 : 오전 10시 34분
 - (2) 폐회시간 : 오후 5시 30분
3. 장소 : 한살림전북 회의실
4. 참석이사
 - (1) 참석 : 박영신, 박지현, 최진희, 임미란, 김영임, 라영신, 문선희, 양은정, 조윤정, 구장희, 조도운, 곽은경
 - (2) 불참 :
5. 참관 : 김수미(감사), 임춘성, 박은희(기록)

■ 정족수 확인 및 개회 선언

- 박영신 이사장이 재적이사 12인 중 9인 참석(박영신, 박지현, 최진희, 임미란, 김영임, 라영신, 문선희, 양은정, 조윤정)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10시 34분, 2017년 1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구장희 이사가 오전 11시에 입장하다.
- 조도운 이사가 오전 11시 10분에 입장하다.
- 곽은경 이사가 오전 11시 13분에 입장하다.
- 라영신 이사가 오후 12시 20분에 퇴장하다.
- 곽은경 이사가 오후 2시 20분에 퇴장하다.
- 임미란 이사가 오후 4시 10분에 퇴장하다.
- 양은정, 최진희 이사가 오후 4시 13분에 퇴장하다.
- 조윤정 이사가 오후 5시 11분에 퇴장하다.

■ 목상 / 인사나눔

■ 전차회의 결과보고

- 임춘성 사무국장이 전차 회의결과를 낭독하다.
- 박영신 이사장이 전차 회의록의 승인 여부를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 사업보고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보고를 하다.
- 양은정 이사가 작년에도 11월에는 공급고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한다. 익산과 군산이 계속 마이너스 상황이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11월까지의 누적이라고 답하다.
- 양은정 이사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매장 회의비 중에서 서신매장과 송천매장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회의비는 회식비이고 활동가의 숫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하고, 명목은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답하다.
- 문선희 이사가 회의비를 매장 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최영미 과장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설명하다.
- 김영임 이사가 복리후생비가 익산매장이 높게 책정된 이유를 묻고,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무엇 인지를 묻다.
- 최영미 과장이 복리후생비에서 매장활동가들에게 나가는 것은 식대라고 설명하다.
- 김영임 이사가 서신매장보다 익산매장이 높게 책정된 이유를 묻다.
- 최영미 과장이 노영래님과 오정실님이 종일 활동가이기 때문에 식대가 높고, 서신매장은 김미경님 빼고는 나머지 분들에게 간식비로 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답하다.
- 임미란 이사가 노영래님의 경우 식대를 공급쪽으로 빼야 한다고 말한다.
- 최영미 과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걸쳐져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한다.
- 라영신 이사가 홍보비의 범위를 묻고, 홍보비를 지역 소식지 등의 발행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최영미 과장이 매장 시식비나 전체적인 홍보비(총회 안내 문자 등)가 포함된다고 답하다.
- 임미란 이사가 익산매장의 경우 회의비가 왜 제로인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일년에 한 번 있는 연수에 익산매장이 빠져서 회의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익산매장이 회의비나 여비교통비가 낮다는 것은 회의나 연수, 교육 참석율이 낮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회의나 연수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다.
- 문선희 이사가 연대활동비에서 평화매장과 익산매장이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는 것인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원래 물품 가져가는 분들이 안올리고 매장쪽에서 올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답하다.
- 조윤정 이사가 감가상각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스타렉스나 탑차 같은 경우는 정액법으로 하고 나머지 비품이나 시설 투자는 4년 단위의 정률법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다.
- 라영신 이사가 비품, 물품에 대한 보관기준이 있는지 묻다.
- 임미란 이사가 비품대장이 있는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본부쪽은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살림에 있으나, 매장쪽은 못하고 있다고 답하다.
- 임미란 이사가 프린터기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얼마 사용하지 않은 프린터기가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라영신 이사가 일부에서는 카메라가 안보인다는 얘기가 있다며 비품대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서신매장의 전기렌지가 부숴졌는데 고쳤는지 묻다.
- 라영신 이사가 카메라 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캠코더 하나가 있으며, 행사 등에는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 라영신 이사가 몇 년 전 생활학교때 구입한 카메라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무국에 있는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카메라는 찾아보겠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차기 회의에서 매장 포함 비품 관리 대장에 대해 답을 달라고 말한다.

■ 부서별 보고 및 활동 보고

1. 매장

(1) 매장물품 진열 & 감모파손 & 유통기한 점검(안)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2) 2018년 각 매장 일일 매장물품 진열 및 감모파손, 유통기한 점검 리스트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2. 회계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다.

3. 개별공급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4. 지역물류

- 박성주 활동가가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김영임 이사가 좀 더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싱싱한 것을 당일 배송으로 해서 절임배추만이라도 공급해주실 수 없는 것인지 구장회 이사에게 묻다.
- 구장회 이사가 자체 시설 문제도 있고 최근에 벌어진 문제들도 있어서 포기한 부분이 있다며, 가능한 방법들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답하다.
- 박지현 이사가 지역물류 관련한 수지분석은 되고 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따로 수지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하다.
- 박지현 이사가 조직이 지역물류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한밤음공동체가 지역물류 비율이 높는데, 연합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다.
- 조도운 이사가 한밤음공동체는 지역물류는 3천 4백만원, 연합은 2억 정도라고 답하다. 지역물류 비율이 15퍼센트 정도라고 답하다.

5. 분과위원회 보고

-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6. 지부/운영위원회 보고

-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7. 마을모임/소모임 보고

-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8. 도농교류

-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9. 생활학교

-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10. 입사·퇴사 및 업무분장

11. 연수 및 교육

-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12. 부서간 전체회의

-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13. 연대활동

-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14. 연합이사회 [심의안건] 보고

- 박영신 이사장이 연합이사회 내용을 공유하다.

15. 생협사업 추진회의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16. 한살림전북 실무자/활동가 퇴직연금 가입 경과

- 최영미 과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퇴직연금 가입 경과를 설명하다.
- 김영임 이사가 1년이 안 된 매장활동가가 가입이 안 된 이유를 묻다.
- 최영미 과장이 1년이 안되고 중도 퇴사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입사하는 동시에 퇴직 연금에 가입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하게 되면 그대로 조직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 최영미 과장이 중도 퇴사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어서 가입을 안하고 있다고 답하다.
- 문선희 이사가 작년에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퇴직연금을 제안하셨는데 가입이 안 된 이유를 묻다.
- 최영미 과장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에 가입을 당시 상무이사님에게 제안했으나, 상무이사님이 당시 이사장님과 논의 후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이런 중대사안이 있을때에는 제안해주신 분의 입장에서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문선희 이사가 작년에 잉여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지 않고 성과급식으로 지급한 것에 의문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결국은 흑자가 아니라 빚을 지고 성과급을 지급한 셈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다.
- 라영신 이사가 현재 부채가 있는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연합의 매입금 외에는 큰 부채가 없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퇴직금 관련하여 그때 감사 지적이 없었는지 묻다.
- 박영신 이사장이 당시 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잉여금을 이사회에서 묻지 않고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야 할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당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였으며, 여러 가지 안건 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촉박하면 다음 해 잉여금으로 넘겼어야 한다고 말한다. 활동가님들에게 지급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더 논의를 했었어야 한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묻다. 이사회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당시 이사장의 승인하에 정산되었다고 답하다.
- 박지현 이사가 어느정도 선까지 보고가 되는 것인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법인이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인도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고 답하다. 이런 결정은 상무이사와 이사장의 승 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하다.
- 박지현 이사가 이사회에 보고 정도는 해야 할 사안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는지 묻다.
- 최영미 과장이 당시 상무이사님이 보고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하다.

17. 활동일지

- 지면으로 대체하다.

18.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임미란 이사가 총회를 앞두고 장기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정리 계획은 없는지 묻다. 미이용 조합원을 계속 자료에 넣을 경우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요청 을 했으나 왜 안하는지 묻다. 총준위에서 논의해주기를 제안하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확인하겠다고 답하다.
- 박지현 이사가 사무국에서 확인 후 파악해서 차기 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말한다.

19. 2018년 한살림전북 대의원 선출

- 지면으로 대체하다.

■ 안건 토의

1. 안건 제 1호 : 매장 확장이전, 신규매장 개설(건)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논의경과>

- 박지현 이사가 작년과 달리 계획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이며, 인건비 상승도 있으므로 지금 시기에 전주매장 개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읍매장 확장 이전과 전주매장 개장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역으로 1억이 출자가 안 되면 신규 매장이 개장이 안 된다는 것인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본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답하다.
- 조윤정 이사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이사회에서는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8,400만원을 들여서 정읍매장을 이전할지, 1억을 들여서 전주매장을 개장할지의 선택인 것 같다고 말한다.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로서 정읍매장 이전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에 정읍에서 적극적인 안이 들어온다면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정읍매장을 확장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한다. 전주에 신규 매장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조윤정 이사가 사업이 어려울 때는 이익이 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전주매장 개장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적자가 예상되면서 정읍매장을 확장이전 하는 것보다는, 전주매장 개장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주매장 개장 후 정읍매장 확장이전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주지부에서 매장활동가와의 간담회 때 매장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주에 매장을 개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말한다. 전주 매장활동가들이 본인들이 흑자 공급고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적자 공급고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읍매장의 적자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그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으며, 전주에 먼저 내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 양은정 이사가 전주에 매장을 내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효자/삼천동 조합원의 수가 월등히 많으므로 이 장소에 매장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출자금을 증액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며, 전주 신규 매장 개장 결정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정읍매장 확장과 신규매장 개장의 자료 준비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말한다. 김제나 부안, 고창 등은 배제하고 전주 매장 계획을 들이미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다고 말한다. 조합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매장을 내야 된다, 요구하지 않는다고 매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다. 부안도 매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한살림에서 수익성만을 보고 매장을 내면 작은 지역은 앞으로 매장을 낼 수 없다고 말한다.
- 최진희 이사가 작은 지역에 매장을 내서 생기는 적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다.
- 임미란 이사가 사업성만을 우선에 두고 늘 논의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활동에서도 교통비 보전을 얘기하는데 목표나 가치만 가지고 생각하자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라고 본다며 말한다. 효자/삼천동 조합원 수가 천명이고 전주지부의 탄생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창립된 것이라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지금 시점에서 정읍매장 확장 이전은 작년에 이미 논의를 했는데, 수익성을 내세우며 전주 신규매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한다.
- 구장희 이사가 조직이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으며, 자본이 축적이 되지 않고 비용으로 없어지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올해도 신규 조합원 출자나 작년 잉여금, 올해 9천만원 흑자도 없어졌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 박영신 이사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분들의 퇴직연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말하

다.

- 구장희 이사가 출자금 증액도 결국은 빚인데 조직의 유동자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매장 확장이나 매장 이전을 하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 최진희 이사가 전주에 매장이 많음에도 신규 매장을 계속 낸다면 문제겠지만, 전주에 매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주에 매장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읍은 현재 적자인 상황에서 확장이전은 맞지 않는다며 전주에 매장을 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송천매장은 몇 년까지 적자였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작년까지 적자였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차기 이사회에서 지역별 조직활동 비용까지를 포함한 수지 분석 자료를 요청하다.
- 조도운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나 대의원 대회 등 책임 단위에서 내년도 매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자료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한다. 1월 중순 안으로는 데이터가 올라와야 한다고 말한다.
- 박영신 이사장이 정읍매장 확장 이전 건 관련해서도 출자증액운동을 열어두는 것에는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자료에서 보다시피 인구 대비 조합원 가입률, 세대수 대비 조합원 가입률 자료를 볼때 정읍은 이미 조합원 수가 넘쳤다며, 정읍은 공급고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올라온 자료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전주는 신규매장 계획을 자료로 올려주었고, 정읍은 자료가 없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정읍은 2016년도에 자료가 다 올라왔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정읍이 먼저 한다고 했다가 유보된 것이라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해결하자고 말한다. 정읍에도 자료를 요구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정읍매장 공급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매장확장 이전 자본 계획, 두 가지가 올라와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전주에 매장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오늘 전주에 매장을 내는 것으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저번달에 출자증액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가져온 자료라며, 2017년 2월에 총회에서 승인이 된 거라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보류된 것인데 다시 또 내년으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은 총회 한 달 앞두고 다음 달에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사무국장에게 정읍에 자료를 요구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지부에서 준비한 자료는 원래 사무국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이 필요한 때라서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본부에 요청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료라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인지 묻다.
- 박지현 이사가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

다. 정읍의 자료는 이미 나왔으며 정읍 확장 이전 얘기는 거의 1년 가까이 얘기되었다며 이제 전주 얘기도 좀 하자고 말한다.

- 조윤정 이사가 정읍 매장 얘기는 기억하기로는 위치, 주소까지 올라왔으며 그때마다 자금 계획을 세워서 오면 승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계속 안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한다. 11월 회의에서 전주에서 매장 개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가져왔고 보고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단순히 다수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며 자본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하고 빚을 낸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한살림전북에 등기 낸 이사로서 걱정스럽고 출자증액을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기 낸 이사로서 아까 김제, 고창 얘기하시는 것은 사업적으로 안전성이 있는지, 현실적이어야 할 때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정읍 매장 확장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하며, 급하게 결정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정읍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주 이야기 하자고 해서 1년을 기다렸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표결에 붙이자고 말한다.
- 구장희 이사가 전주의 고민은 많이 담아왔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조직의 가용 자본이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걸린다며 내년도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안 나와 있다고 말한다. 매장 확장이든 매장 개장이든 감가상각비 때문에 1년 이상 적자가 나올텐데 조직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됐다고 본다
- 양은정 이사가 작년 총회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올린 것이냐고 묻는다.
- 구장희 이사가 작년에는 퇴직연금 문제가 제기가 안되었었다고 답한다.
- 박지현 이사가 매장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지금 신규매장을 결정하고 총회 통과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며, 지금 총회에서 이야기 하자는 얘기는 신규매장 내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한다. 총회 거친 사항을 지금 사무국에서 사업 추진 안한 것이고 이것은 감사 지적 사항이다라고 말한다.
- 구장희 이사가 자본금 차입을 아직 못했다고 하며 순서가 자본금 차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전주지부에서 출자증액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의지를 꺾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더군다나 총회 승인 사항을 다시 생각해보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집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회에서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뤄져야 하는 일인데 첫 삽도 못 뜬다는 것은 아쉽다며 막지는 말아야 한다고 하며 표결에 붙이자고 말한다.
- 박영신 이사장이 전주 신규매장 개장을 위해서 출자증액운동을 하는 것을 표결에 붙일 것인지 묻는다.
- 문선희 이사가 전주에 신규매장 개장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전주지부에서 출자증액

운동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묻다.

- 조도운 이사가 저번 달에 전주에서 출자증액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출자증액은 사무국이 움직여야 하는 일로 보고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판단의 근거인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한다. 역지사지라고 한살림 전북 6월 이사회 회의결과가 '정읍 매장 이전은 제안된 장소가 적정한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며 매장을 당장 이전하기에는 유동 자산이 여의치 않으므로 시간을 두고 장소 및 자본을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한다.'라며,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른쪽에서 이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상승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정읍에 설명하고 그 분들의 계획을 받아오는게 어떤지 말한다.
- 구장회 이사가 이런 저런 어려움은 똑같이 있다며 작년에 정읍매장부터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여유가 있다면 익산이나 군산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쪽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출자증액운동은 할 수 있으며 조합원 결의를 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출자증액운동이 안될 수도 있고 사업이 다 마이너스 되더라 해서 안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효자/삼천동에 담보된 조합원이 천명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사업적으로 겁을 내시면 그냥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말한다.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정읍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먼저 준비되어 있는 쪽을 하게 밀어줘야지 않냐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전주에서 정읍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주에서도 보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보류라는 건 이번 총회 때 자본수지 예산에 없는 걸 보류라고 보는 것이고, 자본수지 예산에 들어가면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앞으로 전북 살림을 책임지려면 신규 매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잉여가 났다고 하니깐 정읍매장 확장 이전을 얘기했던 것이지 흑자가 난 것이 아니었으면 정읍매장 확장이전 끝까지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효천지구에 아이쿱 생겼고 거기에 효자/삼천 조합원 다 뺏길 수도 있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공급고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왜 예상을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한다. 로컬푸드만 가지고도 전주는 충분히 위협적인데 아이쿱과 초록마을까지 생겼다면, 또 미뤄진다면 평화/서신/송천매장의 흑자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 조윤정 이사가 송천동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타 생협과 복수로 가입되어 있다고 말한다.
- 구장회 이사가 본부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 박영신 이사장이 전주 신규매장 개장을 표결에 붙인다. 찬성 5표(조윤정, 김영임, 양은정, 박지현, 최진희), 기권 3표(문선희, 구장회, 조도운)로 전주 신규매장 개장 건이 통과되다.

<의결사항>

- 전주 신규매장 개장이 결정되다. 개장 예산을 총회 자본 예산안에 포함한다.
- 전주지부의 출자금 증액 운동을 승인한다.

2. 안건 제 2호 : 정읍지역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건)

- 라영신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의 경과를 보고하다. 갈등을 원치 않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마음이 아프지만 양측이 합의는 했다고 말하다. 매장 이전 문제는 현재 외관상 미관상 노후화로 필요한 상황이라서 출자금 증액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다.

<논의경과>

- 김영임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조현미님이 들어간 상태로, 이수진님이 빠진 상태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것인지 묻다.
- 라영신 이사가 가장 활성화된 활동인 꼬마농부지기 이수진님이 빠진 상태로 합의가 되었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이사회 결정사항을 권고했는데 조현미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사무국장에게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조현미님에게 권고했으나 조합원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다.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걸로 보인다고 말하다.
- 라영신 이사가 갈등을 최소화하자며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참관인으로 권고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이사회 결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사회 결정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다. 이수진님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유감이라고 말하다.
- 라영신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 위원이 위촉이 안되었다고 정읍 생활학교가 중지된 상태라며 이사회에 의견을 묻다.
- 조도운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 위원이 위촉이 되지 않아서 생활학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다. 그러나 생활학교의 원래 목적이 조합원 활동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읍운영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안고 넘어갈 부분을 안고 가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가 중지 되었을 때도 마을모임과 소모임은 이루어졌다며 생활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박선용 활동가에게 있다며 경과보고서 제출하고 인사위원회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다. 또한 이사회 권고사항을 받지 않은 조현미 매장활동가를 인사위원회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조현미님은 직원으로서 정읍운영위원회에 계속해서 참석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다.
- 박영신 이사장이 지역에서 얼굴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하다.
- 문선희 이사가 조합원 응대를 해야 하는 책임활동가가 그렇게 답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다. 당연히 참관을 해서 참여를 하면 되는데, 이수진 조합원은 참관보다는 위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다. 이사회 권고사항을 받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군산매장 농산물 심의물품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경위서를 받았고, 이사회에서 주의조치가 있었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정읍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경위서를 받았고, 부서간 전체회의에서 공유과정을 거쳤고 이사회에 공유 과정이 있었고, 특별히 개인적인 제재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대책이 강구되었고 이번 이사회에 보고되었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일회성이 있는 농산물위원회 심의 물품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있었는데,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한 판매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다. 주의 이상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현안을 갖고 있는 책임활동가 분께서 매장에 매진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 최진희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활동가를 인사위원회로 올리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한다.
- 라영신 이사가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이사 활동을 하고 그 분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한다.
- 조윤정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받아들이고, 활동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자고 말한다.
- 박영신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 임미란 이사가 권고사항을 받지 않았다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이사회 권고사항을 받지 않았다고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고, 호박즙 관련한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조윤정 이사가 조도운 이사님의 의견이 제 의견이다라고 말한다.
- 양은정 이사가 인사위원회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묻다.
- 박지현 이사가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다고 답하다.
- 양은정 이사가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닌데 상을 주거나 벌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이사회 권위는 떨어졌고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장희 이사가 조현미님을 위촉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 조윤정 이사가 상벌은 공평해야 한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유통기한 판매 사례가 있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예전에 정읍매장에서 사례가 있었다고 답하다.
- 문선희 이사가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신고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장에서는 관리가 쉽지는 않다고 말한다. 문선희이사가 자신도 책임활동가 할때 유통기한 지난 냉동피자 판매했다가 환불해준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아까 임미란 이사님이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박은희 활동실장이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셨는데, 이번 건은 무리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그 건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박은희 활동가 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철회를 했다고 말한다. 그 당시 카톡 내용을 읽어보니 간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철회했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다며 인사위원회 회부 사항인지, 회부가 안 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정관을 고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사회에서 규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 낭독하다.
- 임미란 이사가 호박죽 관련 건을 징계 요구하는 것인지, 권고사항을 받지 않은 것을 징계 요구하는 것인지 묻다.
- 박지현 이사가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권고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조도운 이사에게 만약 전주의 책임활동가가 운영위원회에 극구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하게 두고 유연하게 넘길 수 있을지 묻다.
- 조도운 이사가 운영위원회 자격과 호박죽 문제를 따로 두고 보자고 말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실무자, 활동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권고를 한 것이라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소모임지기 이수진님을 인정하고, 조현미님이 참관하라는 권고를 안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 구장회 이사가 매장활동가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갈지 말지는 그 활동가의 권한이고, 위원 위촉은 이사장의 권한이라며, 위촉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다.
- 양은정 이사가 위촉은 하되 이 분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은 어떨지 말한다.
- 조윤정 이사가 그것에는 반대한다며 그 상황이 되면 또 다시 4월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유통기한이 넘은 호박죽 문제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정읍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대의원 대회 구성이나 조합원 활성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박영신 이사장이 조현미님을 인사위원회로 올릴 것인지 묻다.
- 최진희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 문제는 인정을 하자고 말하고, 호박죽 문제는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구장회 이사가 건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인지, 인사위원회로 올릴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업무 소홀이나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조합에 손해를 끼칠만한 사항이라고 본다며 군산매장의 사례가 좀 더 엄중하다고 본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식약청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벌금을 맞았다면 정읍 건이 더 컸을 수도 있지만, 정식 징계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주의 조치나 시말서, 경고조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곽은경 이사가 권고조치로 하자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권고조치는 이미 안 되고 있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구두보다는 문서로 훈계하자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차후에 타 매장에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한다면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고 누가 감당을 해야 하는지 사무국장에게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법적으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판단은 상황이 벌어지면 해야할 것 같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물품을 판매했고 인사 사고까지 날 수 있는 건이었다며 근무태만 건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대형사고가 될 뻔한 일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들고, 매장에서 전혀 안 생기는 일이 아니고, 알려졌다고 해서 징계를 하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넘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인사위원회 회부 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에 충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 양은정 이사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훈계든 시말서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호박즙 건이 발생했을 때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살림 하는 것은 생산자 분들이 정성껏 만든 것을 조합원들이 믿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주의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다며 인사위원회까지 회부 문제는 시점을 놓쳤다고 말한다. 사무국과 이사장님께 권한을 위임해서 처리해야 하며, 군산보다는 더 큰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 조윤정 이사가 김영임 이사님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작은 일은 아니니 문서화한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사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이사장님이 처리하시더라도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김영임 이사님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시간이 지났다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직무태만이고 조직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도 있다고 말한다.
- 박영신 이사장이 얘기를 종합하면 인사위원회까지는 가지 말고 문서화하고 시말서 정도는 남기는 것으로 결론내자고 말한다.

<의결사항>

- 제안된 내용대로 정읍지역운영위원회 위원 15인을 위촉한다.
- 조현미 정읍매장책임활동가는 유통기한경과 호박즙 판매 관련 시말서를 제출 한다.
- 오후 1시 40분에 정회 후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다.

3. 안건 제 3호 : 2018년 한살림전북 정기대의원총회 일정(건)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논의경과>

- 박영신 이사장이 총회준비위원회에 참석한 매장 대표도 평일을 제안 했다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 김영임 이사가 직장인과 비직장인에 대한 대의원 수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이사회에서 평일로 결정했을 때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하다.
- 박영신 이사장이 전주의 경우에는 직장인의 경우 연차나 월차를 내서 참석한다고 들었다고 말하다.
- 문선희 이사가 조합원 활동에 오는 분들이 비직장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하다.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평일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대의원 총회에 과반수가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참석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다.
- 문선희 이사가 군산의 경우 한 명 빠고는 모두 평일 참석이 가능하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지금까지 평일에 한 적이 없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하다. 사무국에 위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평일로 바꾸는 것은 올해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다.
- 박영신 이사장이 평일로 정하는 것에 의견을 묻다.
- 구장희 이사가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말하다.
- 조도운 이사가 생산자는 괜찮다고 말하다.

<의결사항>

- 2018년 대의원 총회는 2월 22일(목) 오전 10시로 결정한다.

4. 안건 제 4호 : 한살림 전국조직 개편(안) 심의의 건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논의경과>

- 조도운 이사가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한살림 내부가 제로 성장하고 있을 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실무 단위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박영신 이사장이 시간 관계상 특방을 통해 의견을 올려 달라고 말하다.

■ 광고

■ 폐회

- 박영신 이사장이 오후 5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 의사록 서명 2017_11_21(화)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박영신		문선희	
라영신		임미란	
박지현		김영임	
양은정		조윤정	
최진희		구장희	
곽은경		조도운	